

“Orta Vintage Denim 에 대한 회사연혁”

Orta Andolu(이하 Orta)의 빈티지 데님에 대한 이야기는 데님을 생산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Orta 는 1985년까지는 ring yarn 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Ring yarn 은 제조공장의 작업복으로 사용되는 Naphtol 염색 데님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Jean 의 대명사인 리바이스는 1983년 터키 시장 조사를 하던 중 현지 투자은행을 통해 그때까지만 해도 naphtol 염색법과 구직기를 보유하고 있던 Orta 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빈티지 데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Ring yarn 과 인디고 염색이라는 것입니다.

리바이스는 심사 숙고한 결과, 또 다른 데님 생산을 목적으로 미국의 US West Point Pepperel 과의 협력을 통해 Orta 에 생산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하게 됩니다. 당시 West Point 의 직원이었던 Russ Lesler 는 그의 숙련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설비투자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노력 덕분에 Morrison, Suzler 등 데님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Orta 는 1985년 빈티지 컨셉의 첫 번째 단계인 “Rope Dyeing”을 이용한 데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해 “Open End Yarn”생산 준비를 시작으로, 이듬해 1986년 내수시장에는 Saurer WT shuttle 직기를 이용해서 “Ring/Ring Denim”을 생산 하였고,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좋은 Suzler projectile 직기를 이용해서 좀 더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에 맞는 하이테크의 수출용 데님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초반, 리바이스 데님의 표준 첫 번째 규격은 서부 텍사스의 면을 사용한 데님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시제품이 Orta 가 전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역사적인 첫 번째 고객이 Novi Marof 라는 옛 유고슬라비아의 리바이스 공장이었습니다. Fabric code ‘XH143’, 발주한 수량은 25,000 meter 였습니다. 이 발주는 모든 Orta 직원들에게 기념이 되었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7년 독일 쾰른에서 Inter-Jeans fair 중 인터뷰에서 당시 유럽 리바이스의 C.E.O 였던 Bob Rokey 는 전시회 소감을 밝히며, Orta 의 품질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빈티지 컨셉의 두 번째 단계로 “ring Yarn”을 언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988 년부터 Orta 는 빈티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시장을 주의 깊게 모니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Ring 방적을 위한 72mm Howa rings 을 사용하는 회사로 성장 했습니다.

1990 년 초반 제시한 “retro” & “uneven” 컨셉은 “neppy yarn”(지금의 “home-spun yarn”)으로 최초 생산되었습니다. Fabric code “RH 150R”,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고밀도 Ring/Ring fabric 으로 리바이스의 유럽 레드 텡 라인에 공급되고,“리바이스 04 fabric”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Orta 의 “RH 150R”은 리바이스 빈티지 fabric 의 중요한 source 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3 년 유럽의 다른 주요 브랜드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빈티지 데님 원단은 RHT(Right Hand Twill:右綾)을 LHT(left Hand Twill:左綾)느낌으로 생산하기 위해 경사에 “retro”위사를 반대로 재직한 것이었습니다.

‘Replay’의 오너인 Sig Claudio Buziol 은 그 첫 번째 고객 중 하나였고 optic look 에 고무되어 깊은 영감을 얻고 즉시 테스트 작업용으로 50,000M 를 발주하게 됩니다.

1995 년 Orta 는 한 단계 나아가 빈티지 Look 을 위한 하이테크의 “Pure indigo” 염색과 그 동안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Flat Optics”을 완성하게 됩니다.

2000 년에는 Amsler 장치가 추가되어 거의 모든 ring yarn 설비로 교체 되었고 이후 “retro & uneven” yarn 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 년대 초반부터 실험적으로 Indigo-fera plant 의 natural indigo 혼합염색을 기획하게 되는데, 이 실험은 2006 년부터 주목 받게 되었습니다. “Peacock”이란 이름의 이 특별한 인디고 컬러는 현재 Ordenim Line 의 오가닉 제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3 년 Orta 에게는 역사적인 일로 “리바이스 01 fabric” 분야의 데님생산처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Fabric code #6428 개발은 빈티지 데님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의 전통 있는 CONE Organization 을 제외한 “리바이스 01 fabric”에 데님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가 된 것입니다.

리바이스의 01 프로덕션은 Orta 에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Orta 를 빈티지 데님 프로덕션으로 변화시켰으며, 빈티지 데님에 대한 철학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Fillmore”와 “Panhandle”의 개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Orta의 또 다른 꿈은 Dornier Air Weaving Loom의 투자 덕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빈티지 데님 개발에 있어서 1988년에 만들어진 최고의 빈티지 의류에서만 보이는 “crunch” 효과를 하나의 원단 전체에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조사와 개발과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완벽한 “Crunch denim”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으며, 그것이 바로 “Nirvana”입니다.

Orta의 빈티지 컨셉은 fabric과 Design 담당자인 Dario Marangon의 의해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는 빈티지 데님의 전문가로 2003년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으며, 그의 지식과 안목은 빈티지 개발 분야의 목표들 중 인디고 컬러의 농담(濃淡)이나 데님 조직연구를 위한 더 큰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Orta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도 빈티지 데님 개발이라는 훈련을 통해 브랜드와 디자이너 간의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나아가 빈티지 철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Eddie O-Rouke, Antonio di Battista, Piero Türk, Ken Giraud, Camillio Cassina, Giovanni Petrin, Adriano Goldschmied, Angelo Bruni, Wrangler, Lee, Levi's design team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2007년 Orta는 “Fossil finish”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이 컨셉은 19세기 미국 네바다의 구리광산 지하에서 발견되어 빈티지의 전설이 된 Levi's jean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네바다 진은 옥션에서 약 \$57,000에 리바이스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의해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Fossil finish”는 수년간 hand 워싱된 빈티지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08년 “Blulux”는 bright look의 결정체로 빈티지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약한 워싱시에는 광택이 최고에 이르고, 강한 워싱시에도 광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제품의 마무리 공정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Orta는 빈티지 데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개발활동, 투자를 통해 도전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Joe Tannaka
tannaka@attglobal.net